

데스크 시국



정 후 식
정치부장·편집부국장

민선 지방자치 5기가 저물어간다. 10개월 후면 임기 만료다. 내년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 개시까지는 5개월 남짓 남았다. 자치단체장들은 취임 이후 행정을 되돌아보며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할 때다. 한편으로 초조하고 조바심내기 쉬운 시기다. 다가올 선거 걱정이 앞서는 경우다.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일희일비하며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론조사 행정’의 함정

여론은 과학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 형성 과정은 논리적이다. 여론조사는 이런 전제하에 선거 예측 수단으로 즐겨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심하다. 정당의 대

여론과 민심, 그리고 표심

통령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후보를 뽑는데도 활용된다. ‘선거여론조사 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그 결과는 어떤가.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으로 막을 내린 지난해 대선 단일 상당수 여론조사는 빗나갔다. 2010년 지방선거 결과도 예측조사와 달리 ‘여당 패배, 야당 승리’로 마감됐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직전 여론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확정·결정된 이후 민심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요동쳤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는 방법상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휴대전화 가입자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오류다. ‘침묵의 나선효과’도 작동한다. 조사자의 구미에 맞게 조작도 가능하다. 질문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진다. 표본 추출도 문제다. 곳곳에 함정이 있다.

그렇다 보니 민심의 흐름을 놓친 여론조사 기관도 그치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거 때면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 기대는 것은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요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거쳐기로 했다. 지역사회 갈등이 예견되거나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이 그 대상이다. 강운태 시장은 민선 5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시민여론조사 제도화’로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그 첫 사례로 광주 새 야구장 명칭, 전일빌딩 존치 여부, 특급호텔 인센티브 부여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를 둘러싼 정부와 광주시간 공방이 한창이던 이달 초에는 외부기관 자료임을 전제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보도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 내용에는 실문에 부처기에 부적절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여론몰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오류와 왜곡 우려가 제기되는 여론조사에 기대는 행정은 정도가 아니다. 자칫 시정인기가 위주로 흐를 위험도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행정이나 전문가 집단의 식견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하면 곤란하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정책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논리적’ 여론 ‘감성적’ 표심

강 시장은 지난 3년여간 ‘시민이 행복할 창조도시’를 기치로 난마처럼 얽어있던 지역현안들을 풀어냈다. 문화전당 건립 공사 재개와 새 야구장 건립, 재건축을 통한 U대 회 선수촌 조성이 대표적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큰 성과다.

반면 총인시설 비리와 껌코 사태에 이은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일 중독’ 평가를 받을 만큼 고군분투하면서도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애가 타는 대목이지만 공과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공공의 의견을 집약한 여론에 비해 민심과 표심은 감성적이고 직관적 요소가 다분하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기가 훨씬 힘들다. 정치인이라면 여론이든, 민심이든, 표심이든 무시할 수 없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된다. 하지만 솔림은 경계해야 한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주민과의 약속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거운동일 것이다.

/who@kwangju.co.kr

社說

광주 U대회 난국 돌파 대책 서둘러야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광주 U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대회 준비에 올인 해야할 시점에 사무총장 구속으로 조직위 업무가 율스톱 상태에 있고 내년 운영비 확보와 인력충원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또 후원기업 유치마저 헛바퀴를 돌아 당초 예상했던 흑자대회는 커녕 적자대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작금의 상황이 녹록지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광주시와 문체부가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와 관련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필요 예산 1100억원중 국비는 400억원인데, 현재 150억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회홍보는 고사하고 시설테스트를 할 국제대회유치도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 인력충원도 문체부의

승인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도 최근 광주시와 정부의 불편한 관계속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후원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한데 문제는 광주시가 정작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한다는데 있다. 대회가 어떻게든 치러지겠지하는 무사안일 주의가 팽배해있고 부서간 협조도 엇박자다. 당장 강운태 시장이 부시간 호흡이 맞지않는다고 지적을 할 정도다.

이쯤이면 광주시는 위기관리팀 가동을 고민해야한다. 쏟아지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불식시킬 대책을 세우는 한편 흑자달성을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지극히단 안일하게 있다가는 광주를 세계속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광주시·정치권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개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 학교폭력 급증, 근원부터 막아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비상이다. 중·고교에서는 교육당국과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뜸했던 초등학교에서는 폭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9명에 불과했던 초등학교 가해학생이 2011년에는 108명, 지난해 196명으로 3년 사이 많이 증가했다.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도 2010년 2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중학생 가해자는 709명에서 1174명으로 65.6%(465명), 고등학생은 238명에서 342명으로 43.7%(104명) 늘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가해자 발생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 가해자 발생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일이 아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갖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학습장애는 물론 상급학교 생활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광주·전남 모두 상당교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과 전문상담 활동이 중·고교에 집중되는 바람에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크게 높아 성장기가 빨라진 학생들이 통솔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또 초등 시절 폭력 가해자가 중·고교로 진학하면서 더욱 포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와 남교사 비율 확대를 학교폭력의 근원부터 막아야 한다.

無 等 鼓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효(孝)를 유독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효자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는 ‘3대 효행(孝行)’이 있었다. 첫 번째는 단지(斷指)다.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대운 뒤 재를 만들어 술이나 물에 타서 부모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할고(割股)로, 가난한 집 자식이 배고픈 부모를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잘라서 구워드리는 행위다.

마지막은 상분(嘗糞)인데, 부모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대변을 맛보는 것이다. 당시엔 효자로 선정되면 그 마을에 효자문을 세워주고, 복호(復戶)라 하여 부역이나 세금도 면제해주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이른바 ‘3대 효행’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자식도 사람인자라 자신의 몸을 해쳐야 하는 단지나 할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분을 선호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극심한 빈비로 오늘 내일 하는 어머니의 항문에 빨대를 꽂은 뒤 입에 머금은 참기름을 불어넣어

어머니의 병을 고친 효행사례가 전국에 전파되기도 했다. ‘상분’의 한 형태인데, 다소 비위는 상하지만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내내 효자문을 받은 효자 가운데 상당수가 ‘변비치료’라는 효행을 통해 탄생했다.

무릇을 통해 전해내려온 한민족 전통 신화에서도 효는 최고의 가치였다. 대표적인 우리 신화의 주인공으로, 죽은 이를 저승길로 이끌어 주는 오구신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저승까지 내려가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끝내 서천서역국의 환생꽃을 얻어 부모를 살려낸다. 한민족의 유전자엔 ‘효’라는 DNA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부모를 고발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패륜아’들이 잇따르고 있다. ‘상분’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정부에서 ‘효자문’이라도 내려 효자를 포상해야 할 때가 된 것일까. 변해버린 세대가 한심할 따름이다.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효자 만들기



기고



유 순 함
수필가

대낮인데도 시원한 바람이 때문으로 들어와 뜨거운 몸을 살짝 건드리고는 베란다 창문으로 도망친다. 가을이 다가오는가보다. 답답한 핑계로 읽다 덮여온 박지원의 열하일기(고미숙 옮김)가 생각난다. 독서는 시공을 초월하고,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도 여러 곳을 체험한 것보다 더 자상하고 재미있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뿐이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부라 있다면 독서다. 학

독서보다 실천

교에 다니지 않아도 좋은 책만 잘 골라 읽으면 학교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럼에도 학교에 다니야하는 이유는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기르는데 있을 것이다.

정혜운은 ‘삶을 바꾸는 책읽기’에서 “누구는 책을 읽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쓰고, 누구는 남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사기치는데 쓰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고, 슬픔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는데 쓰거나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자기를 뛰어 넘는데 쓴다.”고 말했다. 나는 독서의 순간만큼은 생각해보았다.

독서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며,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또 인생의 평생 지침이 될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한 권의 좋은 책은 어떤 사람에게든 수

년간의 교육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독자의 순기능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앞 다투어 읽으려 한다.

우리 독서회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요일 이른 아침에 연찬을 갖는다. 나는 그 독서회에 일 년에 석 달, 방학 동안만 나가는 불참회원이다. 평소에는 출근해야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해야 하니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독서 속도가 빠르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유난히 느린 독서습관 때문에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또 다음 책을 읽어야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보았다. 한 달에 네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닌지 그 네 권 중에서 가장 좋은 책 한 권을 골라 읽고 사색하며 실천하는 것이 나을지.

나는 일 년에 열두 권의 책도 많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까지는 되도록 많은 양서를 읽는 것이 좋겠지만 성인의 경우 직장이 정

해지면 생활 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직장생활 속에서 동료임기, 가정생활 속에서의 가족임기, 공공질서 속에서의 사회임기, 영화임기, 연극 읽기, 미술읽기, 음악읽기 등.

며칠 전 퇴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불교방송에서 어떤 스님이 보통 불자들이 하는 “성불(成佛) 하십시오!” 대신 “행불(行佛)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컸다. 바로 그것이다. 읽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종교도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독서도 다를 것 없다. 많은 시간을 책 읽는데만 쓰고 정작 실천할 시간이 없다면 독서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여러분! 문학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시거든 한 주는 책을 읽고, 한 주는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고, 나머지 두 주는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고



박 동 주
호남대 초빙교수

최근 박근혜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을 상상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을는데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일전에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취업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대해서도 노동시장 진입시점을 단축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에게 그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대회에서 지난 학기에 ‘청년일자리’를 강 의하다 보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 함께 고민해야

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실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어쩌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그들이 취업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부와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가?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의 임기 중에 지적을 남기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에는 열심이었으나, 중앙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는 관대하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어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22일, 감사원에서는 무분별하고 방만한 지방축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축제는 전국적으

로 9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대비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소수이고, 그나마 몇몇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추진하는 정책을 보더라도 내실 없는 정책뿐이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영구계약직이나 용역에서 직역으로의 전환하는 것이고, 참일자리 정책의 경우에도 일관된 정책의 추진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기성세대들의 두 번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더 심각한 고민을 통해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가이드라인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접목하여 연속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현실성 있게 홍보함과 동시에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 기틀로 자리 잡는 발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은 취업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소재 기업에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고졸일자리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할 때,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희망 가득한 미래를 볼 수 있게 할과 동시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업유치, 고용의 창출, 그리고 인구의 증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장난감 자석류, 아이들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있다. 이 약은 한 알을 꼭 누르면 얇은 은박지 판이 찢어지면서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이 방식이 바뀌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서는 절대 약이 나오지 않는다. 쉽게 찢어지는 은박지가 사라졌고, 두 손으로 특정 부위를 강하게 찢어야만 약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는 가정 소비약으로 언제나 어린이들이 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로 먹는 일을 막기 위

함이라고 한다. 이 타이레놀의 예를 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실수로 먹는 소형 전지, 즉 시계류나 각종 소형 전자제품에 쓰는 손톱만 한 전지를 삼키는 위험성 때문이다. 그것이 위장 내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지뿐만 아니라 장난감이나 기타 가정용품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온 자석류도 아이들이 삼키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한다. 이 자석은 자력이 강해 두 개 이상 삼킨다면 장기를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끌어당기는 상황이 발생해 장전공이나 장폐쇄, 패혈 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자석을 삼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아이들이 자석을 삼키는 장소는 대부분 방과 거실 같은 가정 안이다. 불특정인구 장난감에 포함된 자석, 화용품 자석, 냉장고 부

착 자석, 장신구 자석 같은 것들이다. 특히 요즘 가정의 냉장고에는 치킨, 피자, 족발 같은 업소에서 집에 배달하러 왔다가 툭툭 붙여놓고 간 업소 선전 딱지 부착용 자석이 부지기수로 많다. 아이들이 무심코 입에 넣었다가 삼키기 십상이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까지 위협해 질 수 있으므로 엄마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했으면 한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점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